기아차 광주공장 62만대 생산 체제

연관산업 폭발적 증가… 광주 '모터 시티'로

부품업체 설비 확충… 노사 원활한 합의 과제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연간 50만대 생산체제를 갖춘 지 1년2개월만에 62만대 증산계획을 발표, 지역 경제계가 환호하고 있다.

연간 62만대 생산은 기아차 광주공장으로서는 기아차 최대 공장인 화성공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기아차 대표 공장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지역경제에는 청년 취업 등 고용 창출과 협력업체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근무환경 개선 등 노조와의 원활한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잘 나가는 스포티지R·쏘울 더 팔자=기아차의 이번 결정은 광주공장의 주력 차종인 스포티지R과 쏘울을 더 팔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늘어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이는 증산계획의 주력이 스포티지R과 쏘울을 병행생산하는 광주2공장인 것으로 증명된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스포티지R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차종으로 2010년 3월 출시 이후 국내 소형SUV시장을 석권하는 등 국내외에서 변함없는 인기를 끌고 있다. 쏘울 역시 북미시장에서 경쟁차종인 도요타 싸이언Xb·닛산 큐브를 압도하는 등 북미시장 출시 이후 3년 연속 박스카 시장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광주공장은 이 같은 추세라면 향후 약 10만대 이상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3공장에서 생산하는 1t 트럭의 산업수요가 연간 15만대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고, 글로벌 산업수요 회복에 따라 아시아·중동·중남미 수출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쏘울과 스포티지R, 봉고트럭 등 수출물량의 백오더(주문물량)가 밀려들어 적정재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내외 주문물량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2, 3공장의 라인 증설과 생산능력 향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호재=기아차 광주공장의 증산계획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생산물량 해외이전과 지역 대표 건설사 무더기 제재 등 최근 여러 악재로 주름살이 깊어진 지역경제에 희망이 되고 있다.

우선 광주공장 부품 협력사들에게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광주공장 50만대 증산으로 매출 규모를 크게 확대한 지역 부품업체들은 이번 62만대 증산계획으로 또 한 번의 설비확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매출규모 확대로 인해 대규모 부품업체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도 속속 나오고 있어 지역 강소기업의 탄생도 기대되고 있다.

광주지역 수출증가 등 경제지표 상승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연간 50만대 생산능력을 갖춘 기아차 광주공장이 내년 1500억원을 투자해 생산설비를 대규모 증설, 2013년부터 62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광주시 서구 내방동 기아차 광주공장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현재 자동차가 지역 수출 30%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주력 차종인 쏘울과 스포티지R의 증산은 지역 수출규모의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광주공장 수출 물량의 70%를 소화하고 있는 목포신항 물동량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목포신항 역시 자용차 전용부두를 확대하는 등 수출물량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어 향후 기아차는 수출 선적물량을 최고 80%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지역민들은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노조 협력 과제=계획대로 증산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노조와의 원활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노조가 증산에 어떤 입장을 보일 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50만대 증산 과정에서도 근무조건 개선과 인원 확충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다.

광주공장 측은 "이번 증산 계획은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창출 등 지역의 경제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민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노사 화합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지역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공장 증산 문제를 갈등 없이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KT, 2G 서비스 종료 불발

법원 집행정지 결정… LTE 제동

KT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의 본격 개시를 하루 앞두고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이 7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T는 경쟁사에 뒤처진 LTE 상용화가 더 미뤄져 자칫 내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집행정지는 법원이 집단소송 본안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유지되는데, 본안 판결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KT는 2G 서비스용으로 사용중인 1.8㎓ 주파수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법원 결정으로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미 지난 7월 LTE 전파를 쏘아올리고 LTE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T는 법원 처분과 관계없이 오는 8일 개최하려던 LTE 발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LTE 서비스 개시 선포'와 'LTE 스마트폰 출시' 등 알맹이가 빠진 채 요금제와 전략만 발표하는 '반쪽 간담회'를 열게 됐다.

KT는 올해 3번의 도전 끝에 지난 11월23일 방통위로부터 "8일부터 2G를 종료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였다.

KT가 번번이 2G 종료에 실패한 것은 2G 가입자들을 완전히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KT의 2G 가입자는 현재 12만5000여명이다.

/연합뉴스

박재홍 영무건설 대표 서민주택 기여 은탑훈장

골드클래스 박철홍 산업포장

박재홍 대표

박철홍 대표

박재홍(55) (주)영무건설 대표이사와 박철홍(54) 골드클래스(주) 대표이사가 '2011년 주택건설의 날'을 맞아 서민주택 공급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을 각각 받는다. 시상식은 8일 오후 3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다.

영무건설 박 대표는 지난 1999년 대표이사로 취임해 광주 화정동 '영무예다음'을 시작으로 전북, 경북, 인천, 경기 등지에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위주의 주택을 공급, 친서민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했고,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구현과 주택건설 선진화 노력을 인정받았다.

골드클래스 박 대표는 21년간 2335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힘썼다. 특히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에 6년 연속 참여하고 (재)꿈을현실로장학회 등을 통해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기업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에 노력해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부업체 '문지마 대출'

상반기 1조 넘게 급증

대부업체들이 고객 신용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공격적인 영업을 한 탓에 반기에 대출액이 1조원 넘게 급증했다. 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7조5655억원이던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이 6월 말 8조6361억원으로 1조706억원 늘었다.

전기 대비 대출금 증가율은 2009년 하반기 14.6%에서 지난해 상반기 15.3%로 상승했다. 하반기에 11.0%로 낮아졌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14.2%로 다시 높아졌다. 대부업체 고객은 지난해 말 220만7000명에서 6월 말 247만4000명으로 26만7000명 많아졌다.

대출잔액의 85.5%인 7조3846억원은 신용대출로 파악됐다. 나머지 1조2516억원은 담보대출이었다.

신용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1조696억원(16.9%) 늘었다. 1인당 평균 대출금도 304만원에서 314만원으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가 하반기부터 연 44%에서 39%로 5%포인트 인하되자 금리 하락 부담을 견딜 수 있는 대형 대부업체들이 영업을 확장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919.42 (+16.60)
▲ 코스닥지수	505.68 (+3.09)
▼ 금리 (국고채 3년)	3.33% (-0.01)
▼ 원·달러 환율	1126.10원 (-5.1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해상교량 기술세미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일평)은 7일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한국도로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해상교량 관련 직원과 기술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교량 합동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익산국토청 제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름 바꿔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공단'으로 이름을 바꾼다.

안전보건공단은 8일 인천 공단 본부에서 창립 24주년 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CI와 비전을 공개한다. 새 CI는 안전보건공단의 명칭을 적용했으며 새로운 심벌마크는 '안전과 보호', '건강과 행복'의 십자 형태를 기본으로 회전하는 형상의 균형감 있는 대칭구조를 채택했다.

기존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법적 명칭으로 공식문서에서만 사용된다.

공단은 2012년 사고사망자수와 사고재해율을 올해보다 6% 줄이고 2014년까지 산업재해율 0.5%를 달성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